

## 박정희 신드롬의 현황과 원인 분석

전재호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박정희만큼 찬사와 폄하가 극단적으로 교차하는 인물은 없을 것이다. 한편에서 그는 ‘군사혁명’을 통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있던 조국을 구하고 조국 근대화와 자주국방을 실현한 부국강병의 아버지로, 다른 한편에서는 군사쿠데타, 삼선개헌, 유신체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압살한 독재자이자 정경유착과 빈부격차라는 한국사회의 고질병을 가져온 인물로 평가된다.

### 박정희, 찬사와 폄하가 극단적으로 교차

이러한 상반된 평가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 사회에는 ‘박정희 신드롬’이라는 광풍이 몰아쳤고, 그것은 이후 ‘박정희 기념관 건립’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아 학계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반(反) 박정희 운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반대운동은 박정희의 부정적 유산에 대한 학술적 평가를 넘어서서 김대중 정권의 박정희 기념관 건립 국고 지원 결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결집체인 ‘박정희 기념관 반대 국민연대’의 결성을 가져왔다. 물론 현재 박정희 신드롬이나 박정희 기념관 건립 운동은 점차 약화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박정희 열풍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경제적 위기 및 사회적 혼란이라는 1990년대 중반 박정희 신드롬이 등장할 수 있었던 조건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고, 재벌, 언론, 정치인 등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집단이 아직도 견제하고 있으며, 박정희를 찬양하는 담론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정희 신드롬은 박정희의 공과(功過)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측면을 과장할 뿐 아니라 부정적 측면까지도 긍정적 측면으로 전도

시키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박정희와 그의 시대를 왜곡시키는 박정희 신드롬이 등장하게 되었는가?

1990년대 중반 이후 박정희 신드롬이 풍미했던 것과 달리 80년대 중반까지 박정희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이는 박정희 사후 등장했던 전두환 정권이 그의 후광(後光)을 부담스러워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민들도 독재와 인권탄압으로 얼룩졌던 암울했던 시대를 회상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박정희가 죽었을 때 많은 국민들은 눈물로 그를 보냈지만, 누구도 그 시대로 복귀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당연히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을 기대하였고 그를 흘러간 인물로만 기억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한 독재자가 사라진 곳에 ‘새로운 독재자’인 전두환이 그와 같이 군사쿠데타를 통해 등장하였다. 이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역사의 간계(奸計)였다.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기에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힘으로 박정희의 독재를 극복하지 못했기에 국민들은 새로운 독재자의 출현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전두환은 박정희의 재판(再版)이었지만, 현실에서 그를 영웅으로 받들거나 추앙하기보다는 차별성을 내세웠다. 전두환 정권은 헌법에서 5·16혁명(?) 정신을 삭제하였고, 공화당 실세들을 권력형 비리 혐의로 제거하면서 박정희의 시기를 부정과 부패, 비리의 시기로 규정하는 반면 자신들은 ‘정의사회 구현’을 추구한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이것은 자신의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당연히 1980년대는 새로운 암흑기가 되었고 국민들은 박정희보다 더한 전두환의 독재에 신음하면서 박정희를 잊었다.

그런데 박정희가 다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역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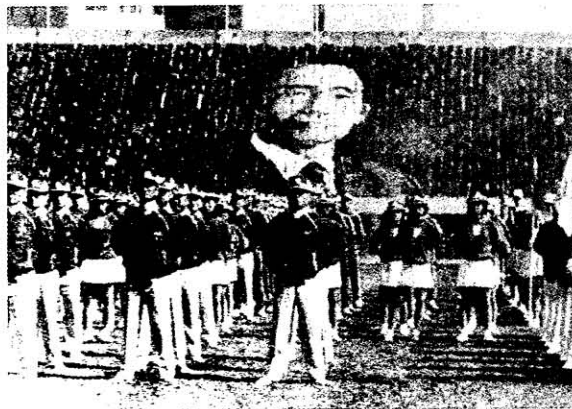
적이게도 국민들의 힘 때문이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반(反) 전두환 정권 투쟁은 1987년 6월 민주화투쟁을 통해 대통령직선제를 가져왔다. 그런데 이로 인해 확장된 정치공간은 민주화운동 세력 뿐 아니라 그 동안 숨죽이고 있던 박정희의 후예들에게도 복귀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박정희 추종세력이던 '구 시대의 인물' 들은 자신들의 재등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들의 정당을 '민주공화당' 을 계승한 '신민주공화당' 이라고 명명하는 등 무덤에서 잠자던 박정희를 불러냈다. 그들은 때마침 불어온 지역주의에 편승하여 박정희의 정치적 '장자' 인 김종필을 대통령 후보로 출마시켰고, 그의 출신지역인 충청권을 기반으로 198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민주화운동의 결과 그것을 탄압하던 박정희가 부활하였다는 사실은 역사의 역설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 산 김영삼이 죽은 박정희를 살려내

1990년대 중반 이후 박정희의 신드롬 등장에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박정희 정권 말기 그와 대결하여 '민주화의 기수' 라는 상징성을 획득했던 김영삼이었다. 김영삼은 정권 획득을 위해 3당 합당을 단행하는 등 독재정권의 후예들과 손을 잡았음에도, 초기에는 개혁정책으로 인해 90%를 상회하는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보수세력들의 반격에 이은 개혁의 실패, 정권의 도덕성에 상처를 주었던 여러 사건들, '역사바로세우기' 라는 역전극의 실패, 결정적으로 IMF관리체제라는 경제위기로 인해 김영삼은 몰락하였고, 보수세력은 죽은 박정희 살리기에 성공하였다. 산 김영삼이 죽은 박정희를 살려내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박정희의 부활이 김영삼의 단독작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박정희 부활극의 배후에는 그를 이용하여 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책과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저지하려 했던 보수세력들이었다. 그들은 김영삼 정부 등장 이후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민주화의 물결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한다고 인식하고, 조선일보 및 중앙일보의 주도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로 세운다는 명분 하

에 과거의 독재자들을 미화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승만을 '분단된' 대한민국을 건국한 국부(國父)로, 곧이어 박정희를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인물로 부활시켰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세력의 담론은 5·16을 군사쿠데타로 규정한 김영삼 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 와 대비되면서 국민들에게 양자택일적으로 다가왔고 김영삼 정부의 도덕성 상실과 경제위기로 인해 국민들을 사로잡았다. 곧 박정희 신드롬은 김영삼의 실정(失政)--부패, 도덕성 실추, 경제적 실패--과 대비되어 박정희의 강력한 리더십, 자기 희생, 경제성장--국민들이 박정희의 장점이라고 간주하는 측면들--이 부각되면서 확산되었다.



전국체육대회 카드섹션에 등장한 박정희 초상(「서울발, 외신종합, 김천길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왜 국민들은 이러한 보수세력들의 담론에 쉽게 포섭되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박정희 시대에 공유되었던 지배적인 통치원리들의 집합체로서의 '박정희식 개발독재 패러다임' 을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 실패" 했다는 지적에서 찾을 수 있다. 정해구는 1990년대의 한국사회가 탈 군부독재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반 구축을 이루어내지 못했고, 변화하는 국제 경제체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자본·노동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새로운 경제 운용방식을 개발하지 못했으며, 성장 및 반공 이데올로기와 결합된 박정희식 민족주의를 대체할 대안적

이데올로기를 개발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 박정희 패러다임의 대체에 실패

이에 덧붙여 보수세력의 담론에 포섭된 또 다른 이유는 정치사회화의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대부분 박정희 시대를 정확히 기억하거나 또는 알지 못하면서 막연히 향수에 빠져 있다. 30대 이하는 박정희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채, 보수세력에 의해 주도된 ‘홀륭한’ 박정희 시대를 학교교육과 언론을 통해 습득하였다. 그들에게 당대의 민주주의 및 인권 파괴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단지

결국 박정희 시기를 살았던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권위주의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고 인권탄압을 받은 경험이 없었으며 당시 시작된 경제발전이 ‘한강의 기적’을 가져왔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박정희 시대를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더욱이 전두환 정권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은 물론 유사민주화 정권이었던 노태우 정권 및 스스로를 ‘문민정부’라 칭했던 김영삼 정권의 실정은 국민들이 국가의 폭력적 지배 아래 강요된 안정과 성장을 구가했던 박정희 정권의 시기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지 않고 있어

한편, 박정희 신드롬은 인권이나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가 현재 한국인들의 사고와 행태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박정희를 자신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사실은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논리에 내포되어 있던 배금주의(拜金主義)와 물신주의(物神主義)가 이제 한국인들의 사고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박정희 신드롬은 IMF이후 한국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21세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김대중 정권의 박정희 기념관 국고 지원 사업 및 이에 편승해 자신들의 명예를 보존하려는 보수세력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박정희 기념관 반대 국민연대의 활동, 국민들의 관심 약화, 추진주체였던 김대중 정부의 퇴진,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부정적 태도로 인해 현재 이 사업이 중단되면서 박정희 신드롬의 파고(波高)도 한풀 꺾인 상황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박정희 신드롬과 같은 병리적 현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를 공정히 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역사적 인물과 시대에 대한 무비판적 서술이 아닌 공정한 서술을 담고 있는 교과서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만이 인권, 자유, 민주주의와 같은 인간적인 가치가 존중되는 살만한 사회, 그리고 박정희 신드롬이 발붙일 수 없는 사회가 될 것이다.

## 더 이상

박정희 신드롬과 같은

병리적 현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를 공정히 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해

당대의 경제발전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었다는 측면만이 중요할 뿐이다. 왜냐하면 학교교육은 당시 한민족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경제발전이라고 가르쳤고, 현재의 사회 현실도 돈 또는 경제가 이상적인 가치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30대 이상의 대부분은 당시의 권위주의 체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들은 권위주의가 일상화된 상황 아래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당시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당시에는 오직 일부 대학생 및 종교인 등 소수의 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권위주의적 통치를 변화시키기 위해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을 뿐이다.